



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공장 용지와 풍부한 산업인력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을 연결하는 육·해·공의 입체적인 교통망! 노사분규 없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한 활기 넘치는 사업장!

산업지역을 둘러싼 국립공원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사계절축제는 충분한 휴식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사하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.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존의 산단 및 농공단지 외에도 호남의 영산 월출산이 눈앞에 보이고 읍소재지권국도13호선에 연접한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가 여러분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
"기회와 희망의 땅", "**투자의 최적지**" 영암에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의 꿈이 성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
■ 산업단지 현황

- 14,754천㎡ 규모의 4개 산업단지가 노사평화분위기 속에서 가동되고 있고 가장 저렴한 공장용지 제공과 경험 있는 풍부한 산업인력 보유
 - 영암테크노폴리스(대불국가산업단지) 11,524천㎡(14,137명)
 - 삼호일반산업단지 2,971천㎡(4,366명)
 - 군서·신북농공단지 259천㎡(543명)
- ※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(116.3천㎡) 2015. 12월말 완공예정

■ 충분한 휴식과 여가문화를 제공할 문화관광자원

- 국가지정 17점, 도지정 54점 등 지정문화재 71점을 보유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관광지가 조성되어있어 주말 근로자가족의 여가문화를 즐기기에 완성맞춤이다.
- 주요관광지로는 평야에서 우뚝 솟은 호남의 소금강산이라 불리는「**국립공원 월출산**」, 신라말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「**도갑사**」, 일본아스카문화의 시조가 되신 박사 왕인의 유적이 잘 관리된「**왕인 박사유적지**」, 최초로 인공유약을 사용하여 시유도기의 발상지로서 도기문화를 계승한「**영암도기박물관**」, 메세나운동의 거장 동강 하정웅선생의 기증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「**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**」, 제헌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낭산김준연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「**낭산기념관**」, 월출산 맥반석 계곡형 천연 풀장인「**월출산기찬랜드**」와 숲과 바람 속에 피톤치드 힐링길「**월출산기찬밧길**」, 국악산조의 시조인 악성 김창조선생의 가야금 문화를 전승하기위한「**가야금테마파크**」, 세계 6억명의 매니아를 열광시키고 자동차 관련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는「**F1국제자동차경주장**」등이 수려한 경관과 함께 영암의 문화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.

■ 숙박과 음식, 그리고 사계절 축제

- 숙박시설로는 수학여행단과 기업워크숍 참가생과 전문 비즈니스 바이어들이 협상하고 숙박할 수 있는 특급 호텔현대(204실), 월출산 온천관광호텔(60실), 한옥호텔 영산재(21실)는 물론 구름 토석담장 골목을 양쪽으로 펼쳐진 한옥과 군서면 곳곳의 韓스타일 한옥민박촌이 월출산 품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
- 풍성한 먹거리

오랜 전통에서 얻어진 비법으로 만든 궁중진상품 영암어란, 향암. 중금속배출 효과가 뛰어난 키틴올리고당이 풍부한 토하젓, 전국 제일의 미질과 브랜드를 자랑하는 달마지쌀골드,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운 영암배, 국내생산69%점유, 꽃을품은 무화과, 대봉감, 단감, 황토수박, 황토고구마, 매력한우, 김장무.배추, 알타리무우, 갈낙탕, 짬뽕어탕, 낙지구이, 장어구이, 백반정식이 있습니다.
-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오감을 만족시키는 사계절축제가 있어 더욱 즐겁다. 새해 첫날「**영암호 해맞이축제**」, 왕인박사의 얼을 기리고 둔화로 즐기는 4월 벚꽃 속에 개최되는「**왕인문화축제**」, 7~8월 불벌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맥반석 계곡형 자연풀장을 갖춘 월출산「**기찬랜드와 기찬밧길**」, 10월 그윽한 국화향으로 낭만과 여유를 부릴 수 있는「**왕인국화축제**」가 계절의 변화를 즐기게 하여 생산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충분한 힐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.